

# 공습 사망 후 '100만 유튜버' 꿈 이룬 소년

팔레스타인의 한 소년이 사망 후 생전의 꿈을 이룬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살았던 13세 소년 엘도스는 평범한 소년이었다. 다만 온라인 게임에 심취해 2년 전부터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구독자들과 소통해 왔다. 그가 올린 영상은 10개에 불과했지만 그는 지난해 "내 꿈은 구독자를 10만, 50만, 100만 명으로 늘려가는 것"이라면서 유명 유튜버가 되겠다는 꿈을 밝혔다.



▲ 사후 100만 유튜버의 꿈을 이룬 엘도스. 사진=유튜브 캡처

에 공유되며 전세계에 퍼졌기 때문이다. 이후 무슬림을 중심으로 한 네티즌들이 엘도스의 유튜브 채널 구독을 이어갔고 이 숫자는 지난 14일 현재 130만 명을 넘어섰다. 엘도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평소 꿈꾸던 유명 유튜버가 된 것이다.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멈추지 않은 가운데 사상자도 늘고 있다. 지난 6일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까지 팔레스타인의 누적 사망자가 1만 22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중 어린이의 숫자만 4,104명에 달한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이번 전쟁으로 10분에 한 명씩 어린이가 사망하고 두 명씩 부상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엘도스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 사망하고 말았다. 하지만 얼마 후 기적이 일어났다. 엘도스의 사연이 소셜미디어

# 충격 ... 악어 도살해 요리 영상 공개한 여성



▲ 악어를 씻고(왼쪽) 요리를 하고 있는 추니양 사오허. 사진=pep.ph

아무리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지만 도가 넘어도 한참을 넘은 듯하다. 최근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서 350만 명이 넘는 팔로어를 지니고 있는 푸드 블로거인 추니양 사오허가 올린 동영상에 누리꾼들을 경악케 했다.

그가 공개한 콘텐츠는 악어 요리였다. 영상 초반 악어를 큰 솔로 씻기는 허의 모습을 볼 때만 해도 누리꾼

들은 애완용 악어를 목욕시키는 줄 알았다.

하지만 곧바로 이 영상은 호러물로 바뀌었다. 식칼로 악어를 죽인 후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한 다음 뼈를 바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다양한 악어 고기 요리를 선보였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아무리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지만 엄연한 동물 학대이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더우인' 측에 이 여성의 아이디어를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황한 허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영상 속 악어는 가죽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육되고 있었다면서 "여러분은 에르메스 악어가죽 가방은 좋아하잖아요?"라고 반박했다.

현재 허는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중국의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 없이 악어 고기를 요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악어는 중국에서 1급 보호동물로 분류되어 있다.

# 단 100장뿐인 '희귀 우표' 200만 달러에 낙찰



▲ 희귀 우표 뒤집힌 제니. 사진=en.wikipedia.org

미국에서 발행 당시 24센트였던 우표 1장이 경매에서 200만 달러에 낙찰되며 미국 단일 우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13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시 갤러리에서 우표 수집가 찰스 핵은 희귀 우표 '뒤집힌 제니'를 200만 달러에 낙찰 받았다.

이 우표는 1918년 미국 정부의 항공 우편을 기념하기 위해 제니(Jenny)라는 이름으로 발행됐다. 하지만 인쇄 오류로 일부는 비행기가 거꾸로 뒤집힌 그림으로 제작됐다.

우편 당국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생산을 중단했다. 하지만 잘못 인쇄된 우표 100장은 이미 유통된 뒤였다. 이 실수가 수집가들의 욕구를 자극했다. 24센트짜리로 발행된 우표의 가격은 100년 넘게 꾸준히 치솟았다.

이 우표의 위조품이 경매에 나왔다가 적발되는 일도 반복됐다. 이로 인해 이 우표는 '성배'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번 경매에서 낙찰된 우표는 100장 중 가장 보존 상태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핵은 '뒤집힌 제니'의 다른 2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00년대 초 30만 달러에 한 장, 2007년 100만 달러에 다른 한 장을 구매했다. 하지만 핵은 더 좋은 품질의 우표를 구매하기 위해 200만 달러를 들여 이날 낙찰에 성공했다.



##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 Home Remodeling